

“대학 고유 브랜드 가치 키우는데 도움 주고 싶어”

유은영 디자인그룹 유영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북대 최고위과정 5기 원우들의 개교 70주년 기념 발전기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디자인그룹 유영 유은영 대표가 이 대열에 동참했다. 유 대표는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최고위 과정을 통해 전북대와 인연을 맺은 유 대표는 전주에서 전문 디자인 업체를 경영하며 대학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하게 됐다고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특히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현와·현수 캠페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이남호 총장은 유 대표를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와 전담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최고위과정을 통해 전북대와 인연을 맺고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전북대가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주)디자인그룹 유영 유은영 대표가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넓은 집 고쳐드립니다

정읍사랑기술봉사단 발대식
발대 당일에도 7가구 집 수리

정읍사랑기술봉사단 발대식은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정읍사랑기술봉사단(이하 사랑기술봉사단)이 지난 18일 2017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성면 보화리 보화마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47명의 사랑기술봉사단, 정읍건축사회 서남근 회장을 비롯한 회원 12명, 보화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과 함께 올해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 사랑 기술봉사단은 4개조를 편성, 오는 10월 말까지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 불우·소외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발대식 당일에도 참석자들은 담장 200m의 색을 칠하고 7세대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했으며 전기 수선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김생기 시장도 봉사활동에 참여 참석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고 “각자 본인의 업무 등으로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매달 2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사랑기술봉사단을 비롯 정읍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김제시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승환)에서 경로당 어르신 짜장면-Day를 운영해 더불어사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효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여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 2월 회의에서 매월 3째주 금요일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짜장면-Day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학동경로당에서 실시했다. 중모마을 설옥남 할머니는 “정성과 진심을 담은 짜장면이라 먹는 내내 정말 맛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단체가 있다는 게 기쁜 일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실버합창단 창단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경규봉)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지관 강당에서 실버 합창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12월 공연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문 강사와 기자재를 지원받아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반주자를 활용하여 원활한 수업을 지원한다. 또한 2017년 실버합창단 외에도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웃음치료, 원예치료가 새롭게 편성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세계 물의 날 기념 국토대청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만들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행사로, 구천동 계곡 및 주요 명소에 대한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이번행사는 설천면사무소, 무주군관광협의회, 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사랑’, ‘배낭무게 줄이기’, ‘산불 예방 캠페인’, ‘청림 캠페인’ 등 여러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관 수원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는 맑은물봉사대 및 직원 90여명과 함께 상관 수원지 주변에겨우내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2시간에 걸쳐 약 1톤 가량을 구슬땀을 흘리며 수거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맑은물봉사대는 2012년부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수도검침원을 대상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조직으로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2012년부터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수도 사업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활기찬 전주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무주군,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무주군은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 2백 5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왜 우리가 청렴해야하는가”, “청탁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정미화 강사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일은 안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라며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개인과 조직,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의미와 항목, 예외사유, 신고 및 처리방법 등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소방서, 익산지역 주재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가 도내 언론기관 익산시 주재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익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익산시 주재 기자단이 참석해 2017년도 익산소방서 중점 추진사업 및 봄철 대비 소방안전대책,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등 협조를 요청했고 기자단의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의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제시 금산면, 원평장터 만세운동 98주년 기념행사

김제시 금산면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98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원평장터 유목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AI 확산방지와 구제역 예방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금산면지역발전협의회와 김제동화농민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축소 시행되었다. 독립투사 유가족을 비롯한 관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식전공연에 이은 시가행진을 통해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평장터는 1919년 음력 2월19일, 장날 오후에 독립투사 9명(배세동, 전도명, 전도근, 전부명, 이병성, 김성수, 전천년, 이만수, 고인옥)의 주도로 장꾼들과 함께 김제지역 최초로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3·1만세 합성이 울려 퍼진 곳으로 광복군 이흥재 장군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활동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회원들 변산면서 무료의료봉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회장 김정남)회원들이 지난 18일 변산면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변산면사무소에서 부안 성모병원 의사 및 간호사 30여 명과 백제한의원, 변산면이장단협의회에서 후원해 변산면내 200여 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약과 영양제를 제공하고 백제한의원에서는 한방과 침술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순창경찰, 야광조끼로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총력

순창청년회의소(회장 최형원)는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를 방문하여 야광조끼 122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은 교통사고예방에 대해 협력하던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최형원 순창청년회소 회장은 날씨가 풀림에 따라 야간 보행 및 경운기 운행이 잦아들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준비했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일섭 순창경찰서장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기증에 이어 올해에도 농사철을 맞아 도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야광조끼 지원을 해 주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더욱 앞장설것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경찰 아산파출소, 봄철 인삼밭경작지 순찰활동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아산파출소는 봄철, 인삼밭경작지에 대한 맞춤형 특별순찰 활동에 돌입하였다. 고창은 인삼경작지로서 선호도가 높아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인적이 드문 응달의 아산주변지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경작자들도 자주 들여다 볼 수 없고 또한 소량으로도 고액의 현금과 맞바꿀 수 있어 절도범들의 순위순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확시기가 임박한 4~6년근 이상의 재배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찰노선 2개를 책정하여 심야시간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인삼경작자 상대로 도난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형대 아산파출소장은 “순찰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주민들의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0일 등록(월간) (주)전주매일 (주)전주매일 (주)전주매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전주매일 (주)전주매일 (주)전주매일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겸 편집국장 김관준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6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84
효진지사 010-8945-933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